

비판사회학 소식지

비판사회학회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권두언

2023 비판사회학대회를 준비하며



■ 김주환
(연구위원장/동아대)

사회비판을 위한 많은 개념과 상상들이 제기되어왔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가 아마도 ‘물신’ 또는 ‘물화’가 아닐까 합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성으로 상품 물신성을 제기하고 이를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사물과 사물의 사회적 관계로 대체되는 현상’으로 포착한 이래 물신은 우리 사회의 위기와 병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후 물신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비판적 사회이론의 전개 속에서 여러 형태로 변주되며 정교화되어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루카치는 마르크스의 상품물신성과 베버의 형식합리성 논의를 결합하여 ‘물화’라는 용어로 자본주의의 특징을 포착했고,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물화를 도구적 이성 비판의 관점에서 문명비판의 개념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하버마스의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명제, 호네프의 ‘인정 망각’, 지젝의 ‘냉소주의적 물신’이라는 용어들 역시 물신 내지 물화 비판을 각자의 방식으로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사물과 사물의 사회적 관계’로 체계적으로 ‘대체’될 때 우리 세계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양식은 마치 외적인 역명의 객관적 질서에 의해 작동하는 것처럼 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사회적 삶은 우리의 집합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객관적 법칙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며 비판적 사회적 인식과 실천, 집합적 의사결정으로서 민주정치, 사회의 도덕과 규범 등이 잉여가 되어버립니다. 그 뿐만이 아니겠지요.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신 사이의 관계 등 우리의 사회적 삶의 전 범위가 차가운 사물의 논리로 구조화되어 버리게 됩니다.

(다음 면 계속)

발행인: 서동진 / 편집인: 김명수

주소: 03980 서울 마포구 동교로 51길 77 2층

비판사회학회

Homepage: www.criso.or.krE-mail: sansahak1984@gmail.com

전화: 02-3148-6220

문제는 이러한 물신 내지 물화가 오늘날 한층 더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사물처럼 취급되지 않는 사례를 찾기 어려워질 지경이며, 세상은 어차피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패배적 정념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논의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로는 차가운 익명적 사물 논리에 대한 복종 그리고 아래로는 뜨거운 분노와 혐오 정념의 엄청난 분출이 사회의 매개 없이 직접 결합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사회적 삶이 사물들의 익명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에 의해 작동한다는 물신화된 또는 물화된 인식의 전면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오늘날 물신이나 물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과 비판이 응당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23년 비판사회학대회는 오늘날의 물신과 물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중심으로 꾸렸습니다. 마침 올해는 루카치의 <역사와 계급의식> 출간 그리고 비판사회이론의 중요한 산실 역할을 한 프랑크푸르트 사회조사연구소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여 사회비판의 중요한 주제로서 물신과 물화의 문제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2023년 비판사회학대회는 ‘물신과 물화 다시 생각하기’라는 대주제로 오는 10월 27일 연세대(서울)에서 열립니다. 물신과 물화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흥미로운 발표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비판사회학대회가 사회 비판의 이론과 실천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비판사회학대회를 지원해주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교육연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판사회학대회에서 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끝)

2023 비판사회학대회 물신과 물화 다시 생각하기

■ 일시: 10월 27일 (금) 10:00~18:20

■ 장소: 연세대학교 빌링슬리관 (110호, 202호)
연희관 (401호)

■ 기획세션

1. 물신 및 물화 비판의 현대적 확장 1
2. 물신 및 물화 비판의 현대적 확장 2
3. 서구 마르크스주의와 물신 및 물화 비판
4. 물신 및 물화의 사회적 상상과 비판사회이론

■ 일반세션

1. 돌봄과 호혜
2. 21세기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적 탐색사
3. 젠더, 섹슈얼리티, 역사
4. 정치와 민주주의
5. 이론과 방법, 구조와 주체
6. 노동, 경제, 구조

〈연대의 토크 #1 복합적 위기와 기후정의 운동〉 후기

■ 전원근 (제주대 사회학과)

우리 학회는 제도적 아카데미의 틀을 넘어 사회변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올해 〈연대의 토크〉를 기획하였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7월 6일 서교동에서 기후정의활동가이자 연구자인 김선철 선생님을 발표자로 모시고, 〈복합적 위기와 기후정의 운동〉이라는 제목의 콜로키움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그간 우리 학회는 ‘기후위기’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와 이론적 논의들에 주목해 왔지만, 이번 자리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정의운동의 ‘정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동’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발표자인 김선철 선생님은 먼저 기후위기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추출적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환경과 생태에 대한 파괴적 결과들, 그 영향에 있어서의 불평등, 민주주의의 약화와 차별 및 배제의 문제들 등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부정의 (injustice) 현상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기후정의운동을 부정을 경험하는 당사자들, 즉 농민과 노동자,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이주민, 빈민 등이 운동의 주체가 되는 “사회적 ‘을들’의 집합적 힘”으로 정의하면서, 이 운동이 기존체제와는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체제전환적 운동 혹은 변혁적 정의의 과정임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잘못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온 국제사회의 역사적 궤적과 함께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2019년 300여 개 단체와 개인들의 연대 형태인 ‘기후위기비상행동’으로 시작된 한국의 기후정의 운동은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를 정책적 슬로건으로 삼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스스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아젠다를 확장하는 것보다 정부에 해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기후정의의 아젠다가 ‘녹색성장’이 ‘그린뉴딜’과 같은 신성장담론과 금융기관들의 새로운 이윤창출 사업으로 포섭되면서 실질적 힘을 잃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2021년에 들어 기후정의의 문제의식이 심화되고 정부의 친기업과 성장중심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탄중위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2022년 상설 연대체인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이 구성되었다. 이제 기후정의운동은 비인간 존재들을 포함한 ‘사회적 을들’의 집합적 힘을 모아 체제 변혁을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가장 포괄적인 사회운동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정의운동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토론자와 청중들의 굉장히 비판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

콜로키움은 전의령 선생님(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의 사회와 홍덕화 선생님(충북대 사회학), 그리고 김지혜 선생님(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두 분의 토론은 기후정의운동의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를

(다음 면 계속)

비판적으로 질문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으나, 질문의 구체적인 대상은 서로 달랐다. 홍덕화 선생님은 기후정의 운동이 풀뿌리와 최일선 공동체 등을 강조한다고 할 때 한국의 맥락에서 운동의 조직화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체제전환을 목표로 할 때 현재와 도래할 체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동의 비전에 있어서 내부의 다양성과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김지혜 선생님은 기후정의운동이 다양한 운동과 과제들을 포괄하는 엠브렐라 운동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할 때, ‘기후정의를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후정의의 체제전환이라는 운동 목표가 총체적인 위치에서 스스로를 교조화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맞서 이미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길과 차이들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청중에서도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친환경과 녹색이라는 새로운 자본의 전략과 기후금융이 추진하는 거버넌스를 우리가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기후정의가 말하는 체제전환이 너무 불분명한 것은 아닌지, 기존 사회운동을 지배했던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대치구도를 여전히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날카로운 질문들이 기후정의에 대한 바람들과 함께 이야기되었다. 김선철 선생님은 농지 태양광에 비협조적인 농민들을 비난하는 언설들과 같이 불평등한 상황에 있기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뒤떨어진 존재로 만드는 주류 기후정책이나 거버넌스 형태들에 비판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체제전환과 구체적 대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진행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임을 이야기했다.

콜로키움에서 나온 질문들은 선뜻 한 사람의 발표자나 활동가가 전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기후정의 운동이 이제 막 시작되고 섬세화되기 시작한 단계에서 ‘정답’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질문들은 한국의 기후정의운동이 서로 다른 궤적을 가진 시민사회운동과 학술운동들이 마주치며 역동적인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거는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 내재한 차이들과 긴장들은 단 하나의 언표로 이야기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말고 체제변화를!’이라고 하는 핵심적 구호 안에 내재한 더 나은 세상의 존재방식에 대한 열망들은 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힘이 될 것이라는 점은 콜로키움에 참여한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끝)



비판사회학교

올해로 세 해를 맞는 <비판사회학교> 프로그램으로 3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작년에 개설하였던 <노동사회학> 강좌에 더해, <인간 너머의 정치경제: '위기' 너머의 비판사회학을 향하여>를 새로 열었습니다. 2021년에 개설했던 <질적연구방법> 강좌는 '현장연구' 방법에 대한 심화학습과 실습 설계를 돕는 목적에서 <질적연구방법: 현장연구실습> 강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올해 <비판사회학교>는 <질적연구방법: 현장연구실습>을 시작으로(7월 17일~8월 3일), 7월 31~8월 4일 <노동사회학>, 8월 7일~11일 <인간 너머의 정치경제: '위기'의 비판사회학을 향하여>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2023 <비판사회학교>는 실습 중심의 방법론 강좌를 개설함과 아울러 기후위기와 생태문제에 관한 학문적, 실천적 관심을 제기함으로써, 비판적 사회(화)학 연구를 지향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학회의 방중사업으로서 그 자리를 더욱 굳혀갔습니다. 올해 개설했던 세 강좌의 프로그램을 실습니다.

질적연구방법 워크샵: 현장연구실습

※ 모든 강좌 진행시간은 15:00-17:50으로 동일
(단, 질적연구방법 워크샵 5강은 18:00~20:50에 진행)

- | | |
|---|-----------|
|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 연구주제 선정, 연구방법, 연구윤리
최인이(충남대 사회학과) | 7월 17일(월) |
| 연구 현장 속으로: 참여관찰
서선영(충북대 사회학과) | 7월 20일(목) |
| 연구 현장에서의 만남: 심층 인터뷰
장호진(연세대 문화인류학과) | 7월 24일(월) |
| 참여관찰 실습: 필드노트 리뷰, 그룹 토론과 피드백
서선영·장호진 | 7월 27일(목) |
| 심층인터뷰 실습: 녹취록 리뷰, 그룹 토론과 피드백
서선영·장호진 | 8월 3일(목) |

노동사회학

※ 모든 강좌 진행시간은 15:00-17:50으로 동일

- | | |
|--|-----------|
| 생산방식, 작업조직, 노동과정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7월 31일(월) |
|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유형근(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 8월 1일(화) |
| 노동의 디지털화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 8월 2일(수) |
| 국제적 분업구조와 노동이주
김철효(경상국립대 사회학과) | 8월 3일(목) |
| 노동시장과 불평등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 8월 4일(금) |

인간 너머의 정치경제: '위기'의 비판사회학을 향하여

※ 모든 강좌 진행시간은 15:00-17:50으로 동일

- | | |
|---|-----------|
| 자본주의와 행성적 위기를 함께 말하는 하나의 방법: 제이슨 무어의 세계생태 분석
이광근(동국대 다르마칼리지) | 8월 7일(월) |
| '위기'의 교차성과 에코페미니즘의 비판적 질문
김신효정(예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 나무') | 8월 8일(화) |
| '위기와 함께 하기': 인류세와 멸종의 비판적 민족지학
전의령(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 8월 9일(수) |
| 성장의 한계와 탈성장 대안
김현우(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 8월 10일(목) |
| '지금, 여기'의 기후정치
홍덕화(충북대 사회학과) | 8월 11일(금) |

하계학술대회
20회 콜로키움

비판사회학의 새로운 실험과 연대

2023년 하계학술대회 및 20회 콜로키움(연대의 토크 #2) 후기

■ 우세롬 (충남대 사회학과)

사회과학은 공동체, 사회적 연대, 공정성, 사회정의 등의 개념에 몰두해왔다. 특히 연대 개념의 형성, 발전, 그리고 이러한 연대의 과정이 사회적 전체 또는 정서적 공동체에서 실현되는 것에 주목해왔다.¹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논의에 목마른 시기가 아닐까 싶다.

최근 한국은 가장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2022년 이태원 참사에 이르는 일종의 ‘사회적 외상(Social Trauma)’²을 연달아 경험하였다. 또한 2019년 시작되어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과 피해를 안겨준 코로나19(COVID-19)의 경우 그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이로 인한 장기적인 사회적 파장을 연구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열린 <비판사회학의 새로운 실험과 연대>는 크고 작은 사회적 논의들을 느슨하게 연결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다음 면 계속)

1. Anthony Elliot Bryan S. Truner(2015), 사회론, (주)이학사.

2. 이철(2010), 사회적 외상(Social Trauma)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연구: ‘용산 참사’ 사건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no.149.



2023년 비판사회학회 하계학술대회 〈비판사회학의 새로운 실험과 연대〉는 ‘젠더, 여성’, ‘사회변동’, ‘가족·돌봄·치안’, ‘청년과 문화’, ‘행위와 제도’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1박 2일에 걸쳐 총 15개의 발표가 알차게 진행되었다. 학술대회 첫날 마지막 순서로서 “반성매매 활동, 젠더섹슈얼리티 권력관계와 정치경제 권력관계에 균열내기”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반성매매 활동가들과의 토크는 그 자체로 연구자와 활동가를 이어주는 ‘새로운 실험과 연대의 공간’이 되었다. 이틀간의 학술대회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논의할 수 있었고 각 세션별 토론, 종합토론, 질의응답을 통해 오고 간 소중한 질문과 피드백은 연구의 방향성을 한층 더 다듬을 수 있는 연구자의 자산이 되었다.

필자가 직접 참여한 세션을 중심으로 발표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변동’ 세션에서는 노동자 조직화, 소득 계층화, 해양 자본주의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행위자들을 다룬 연구와 계급 간 소득불평등, 해양 자본주의를 역사적·구조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가 적절히 배치되었다. 필자는 본 세션에서 첫 번째 순서 발표의 기회를 얻었다. 지난 몇 년간 정부, 제도, 노동조합, 사회운동 등 다양한 외부 자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경비 노동자 조직화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배경에서 노동조합과 비노동조합 이해대변조직의 공존, 이중적 지위자(고객이자 사측)인 입주민과의 연대로 조직화를 이뤄낸 사례 연구이다. 다음으로 ‘가족·돌봄·치안’ 세션은 새로운 문화 또는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현상을 분석한 연구들로 이뤄졌다.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모은 ‘오은영’ 육아담론, 장기요양보호제도와 요양보호사의 노동경험, 스토킹 범죄예방의 ‘아웃소싱’에 대한 것으로 젠더·여성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주제들이었다.

둘째 날 첫 세션인 ‘청년과 문화’ 세션은 청소년의 공간 인식, 청년 문제와 돌봄 문제의 교차성을 보여주는 ‘영케어러(Young Carer)’, 최근 청년 문화의 핵심에 있는 MBTI 연구로 구성되었다. 청년들의 주류 문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드러나지 못했던 당사자 목소리를 드러내는 연구들로 채워졌다. 직접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던 ‘젠더, 여성’ 세션은 중장년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와 시대를 아우른 연구들로 구성되었다. 세대와 시대에 따른 여성·젠더 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해볼 수 있는 세션이었다. 마지막으로 ‘행위와 제도’ 세션은 재난 참사(이태원 참사)와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사회적 사건을 경험한 행위 당사자의 고통, 죄책감, 위치성에 관한 연구들로 이루어졌다. 연이어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것은 “새로운 실험과 연대”를 말하는 이번 학술대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면 계속)

첫째 날 마지막 순서로 열린 비판사회학회의 29번째 콜로키움이자 두 번째 연대 토크인 “반성매매 활동, 젠더섹슈얼리티 권력관계와 정치경제 권력관계에 균열내기” (발표: 혜진(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는 활동가와 연구자가 함께 현장으로부터의 고민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인문·여성·젠더 관련 학과, 지역사회 여성 단체 등의 참여도 뜨거웠다. 필자는 사회과학의 현장성, 실천성, 성찰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끼리만 소통하는 학술 행사를 아쉽게 여겨왔기 때문에 이번 콜로키움이 더욱 반가웠다. 연구자와 활동가가 아이디어를 모으는 연대의 자리가 지속되길 희망한다.

얼마 전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 선배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이 적어 보이는 연구에서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힌트를 얻을 때가 많으며 후배들에게 학회 행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필자도 1박 2일간의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학술적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응원과 위안을 받았기에 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 다음 학술대회에서는 더 많은 신진연구자들의 참여가 있기를 희망하며 보다 완성도 높은, 다양한 최신 연구 발표를 듣는 행운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Day 1 8월 17일(THU)

12:30 ~ 13:00 등 록

13:00 ~ 13:15 개회식(W12-2, 201호)

개회사: 서동진(비판사회학회장) 환영사: 정선거(충남대 사회학과장)

세션	주제
젠더, 여성 시간 13:15 ~ 14:45 장소 W12-2, 203호 사회 전운정(국회 입법조사처)	증로지역 중고령 성매매 여성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근대화 • 발표: 윤선미(중앙대) • 토론: 박정미(충북대) 바디프로필 문화에서의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편향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과의 상관관계 연구 • 발표: 손송이(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토론: 전운정(국회 입법조사처) 계급과 지역, 젠더의 교차성을 통해 바라본 청년들의 '포스트로맨스' • 발표: 황채린(전북대) • 토론: 유현미(창원대)
사회변동 시간 13:15 ~ 14:45 장소 W12-2, 204호 사회 강민형(전북대)	아파트경비노동자 캠페인 연합의 형성과 활동 • 발표: 우세룡(충남대), 이창근(충남대) • 토론: 조혁진(노동연구원)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계층화 양상 • 발표: 이해창(성균관대) • 토론: 황선재(충남대) 해양 자본주의 내에서 로지스틱스와 금융화: 한진해운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장병호(중앙대) • 토론: 강민형(전북대)
14:45 ~ 15:00 휴식	
가족, 돌봄, 치안 시간 15:00 ~ 16:30 장소 W12-2, 201호 사회 서선영(충북대)	마당정서관리의 정상화(normalization) 과정으로서의 '오온영 신드롬' • 발표: 이지연(전북대) • 토론: 박치현(대구대) 공공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노인 돌봄 노동자의 일 경험 • 발표: 이은정(연세대) • 토론: 이태정(성공회대)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통해 본 스톱킹 범죄예방의 '아웃소싱' 현실: 경찰과 경호업체 피해자를 중심으로 • 발표: 조해민(경찰대) • 토론: 주해진(대전세종연구원)
제29회 비판사회학 콜로кви움: 연대의 토크, 두번째	
시간 16:45 ~ 18:15 장소 W12-2, 201호 사회 박정미(충북대)	반성매매 활동, 젠더색수열리티 권력관계와 정치경제 권력관계에 균열내기 • 발표: 혜진(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토론: 김영우(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개네), 유현미(창원대)

Day 2 8월 18일(FRI)

청년과 문화 시간 10:30 ~ 12:00 장소 W12-2, 201호 사회 김주환(동아대)	청소년들의 '팅 빈' 공간에 대한 의미와 경험 분석 • 발표: 권민조(성공회대) • 토론: 박해남(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가족돌봄 청년(YOUNG CARE)의 돌봄 수행 과정과 전략: 생애주기과업을 중심으로 • 발표: 조영아(충남대) • 토론: 이상직(국회미래연구원) MBTI 문화의 사회심리학: MBTI는 어떻게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성격유형 검사가 되었는가? • 발표: 이성빈(경상국립대) • 토론: 김주환(동아대)
행위와 제도 시간 10:30 ~ 12:00 장소 W12-2, 203호 사회 김명수(전남대)	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의 죽음에 대한 사례연구: 사회적 고통에 대한 실재론적 접근 • 발표: 김치홍(경상국립대) • 토론: 권오웅(충남대) 공간적 행동 하에의 제3자 처벌: 행위자 기반 모형의 결과 • 발표: 천거양(전북대) • 토론: 박천웅(전북대) 5-18과 '비규정성의 고통': 공법단체 설립과정을 중심으로 • 발표: 정소희(전남대) • 토론: 김주호(경상국립대)
12:00 ~ 12:10 폐회식(W12-2, 201호)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에 대하여

■ 배영미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

지난 9월 15일에 개최된 비판사회학회 콜로키움은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의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에 대한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비판사회학회 콜로키움에 단순 참여한 ‘청중’이자 발표자의 ‘제자’ 입장에서 콜로키움 후기를 쓰려니 다소 낯설고 조심스럽다. 그러나 책에 대한 느낌과 콜로키움에서 나누어진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여 그날의 소중한 말과 생각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을 읽고 난 느낌은 참으로 ‘명징하다’는 것이다. 책을 읽을수록 차별의 구조와 차별받는 감정이 ‘명징하게 직조’되어 있다고 느껴졌다. 하여 이 책 감상평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명징하게 직조된 차별의 구조와 감정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의 핵심은 마이클 만 감독의 〈제리코 마일〉이란 영화에 잘 드러나 있다고 말하였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보다 더 빨리 달리지만 미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까닭에 메달을 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주인공 래리. “무의미한 허상일 수 있는 왜곡된 능력주의”(230쪽)를 비판하는 이 영화를 통해 저자는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았을 때 느껴야 하는, 그래서 그 구조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진실한 감정을 막아서 있는 거대하고 단단한 벽들”(230쪽)이라고 말한다.

책은 ‘차별의 구조’와 ‘차별의 서사’, ‘차별받지 않는 마음을 위하여’로 구성되어 있다. 늘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온 학자답게 저자는 ‘조직’과 ‘국가’와 ‘신념 체계’라는 차별의 견고한 구조부터 진단한다. 저자는 특히, 그리그스(Griggs) 대 듀크 전력회사 소송에서 드러난 조직의 ‘간접차별’(disparate impact)이라는 개념이 혁명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표면상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소수자 집단에게는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 현실의 제도나 구조들이 간접차별이라는 개념을 통해 드러났고, 나아가 차별과 불평등 개념을 이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이다.

사실, 차별이나 불평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심각하게 주관적인 특성이 있고 이를 판단할 때 공정함의 넓은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회색지대에 있는 차별의 특징으로 인해 차별받는 구조를 명확히 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간접차별’이라는 개념은 차별하려는 의도와 무관하게 조직의 차별적 관행을 밝혀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면 계속)

또 하나 차별의 주요한 구조인 ‘국가’에 대해서도 저자는 “지배계급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행하는 기구”(56쪽)로서의 국가 개념이라는 전제 하에 엘리트 고위 관료들이 지배하는 국가, 특히,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된 ‘능력주의’ 독재 하의 한국 사회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양산하고 차별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국가는 기업으로 하여금 합리적일 뿐 아니라 윤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규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기에 오늘 한국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는 채로 남겨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념체계 역시 차별을 견고히 유지시키는 구조 중 하나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완성한 예란 테르보른”(79쪽)의 세 가지 질문 - ‘무엇이 존재하는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가능한가’를 통해 저자는 신비화와 정당화 과정으로서의 신념 체계에 대해 정리한다. 이 중에서 ‘신비화’(mystification) 개념을 통한 이데올로기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웠다. ‘신비화’라는 것은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도는 것과 같이, 가난은 구조의 문제임에도 자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 보인다고 생각하는, 즉, 실제 상황을 왜곡하고 가리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상, 가난한 이들의 90 퍼센트는 구조적인 이유 - 경기 변동, 경제의 이중 구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 로 가난한데 생활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 지배계급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에 대해 잘 모르기에 그저 피상적으로 “게으르면 저렇게 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비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선한가?’는 정당화(legitimization)와 연결되는 질문인데 저자는 스피넨랜드법(1795년, 영국 농촌 노동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에 농촌 피폐화의 누명을 씌운 사례를 통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빈민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없어야 한다는 왜곡된 주장들이 여전히 정당성을 획득하는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이라는 신념체계의 착시를 해부한다.

‘무엇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헤게모니’로서의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저자는 시장경제, 경쟁적 개인주의, 능력주의 등이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차별받는 처지에서도 결국 체념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헤게모니’라고 강조한다. ‘대기업에게 좋은 것이 결국 나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헤게모니로 인해 가장 교활하고 강력하게 권력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면 계속)

차별의 서사와 차별받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웠다. “우리의 감정은 거대하면서도 치밀한 그 차가운 구조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 저자는 해고를 당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프레임하는가에 따라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분노를 표출하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노조차 표출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조직적 차별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두드러지는 감정이 ‘체념’이고 이는 시험 서열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가 강할 때 자주 발생한다. “진정한 능력주의는 모든 시민이 유사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 보장될 때, 평생에 걸쳐 능력을 증진시킬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때 완성”(105쪽)됨에도 옹용된 능력주의에 길들여진 다수는 다른 사회적 질서에 대한 희망이 없기에 ‘체념’하거나 ‘적응’하거나 주눅 들어 살게 되는 것이다.

콜로키움에서 저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슈로 ‘공정’ 이슈가 드높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눅 든 목소리를 기억하며 차별에 대한 시정 요구를 자신의 정당한 요구로 느끼게 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이념’이 가진 헤게모니를 지적한다. 공정이라는 개념을 지배계급이 차용할 때 ‘공정’은 무조건 능력대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고 그 결과 정규직 전환 요구는 불공정한 것이 되고 오히려 차별이 공정이 되는 언어도단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결국 “능력주의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자는 능력주의 담론으로 인해 나타나는 또 하나의 감정인 ‘혐오’에 대해서도 간명하게 정리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이민자를 대상으로 표출되는 감정인 ‘혐오’는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열등한 생산성을 가진 모 든 자(여성, 장애인, 노인 등)들에게 작동한다. 저자는 이렇게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영화 <기생충>에서 ‘선을 넘는 녀석’을 통해 포착하고 있다고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선을 넘어 역겨운 가난과 노동의 냄새가 상류층에 전달되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붕괴되는 순간,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완성된다”(170쪽)고 명쾌하게 정리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정작 이 영화를 본 기득권층 사람들이 영화 속 박사장 정도면 착한 축에 속하는데 왜 죽였는지 모른다고 말했다는 지점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기득권층이, 차별받는 사람들의 분노와 절망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간극이 커져버린 까닭이라는 저자의 진단이 아프게 와닿았다.

이후 여러 이야기가 오갔으나 인상 깊었던 부분만 말하자면 영화 <밀수>의 해녀에게도 기본소득이 주어졌다면 상어가 출몰하는 곳에 굳이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김종진 토론자의 말씀과 차별을 이야기할 때 건조한 접근이 대부분인데 사례와 문학과 이론이 잘 버무려진 책이어서 좋았고 일상에서도 이 책을 놓고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가람 토론자의 의견도 기억에 남는다. 또한, 어떤 학생의 질문 - 결국, 구조 변화가 먼저인가, 인식 변화가 먼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결국 제도의 변화를 통해 프레임이 바뀌고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민원도 넣고 정책에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공감하기도 하였다.

(다음 면 계속)

이 콜로키움에 참여하는 내내 노래 하나가 생각났다. 그건 바로 31살의 컨트리 가수 올리버 앤서니의 데뷔곡 ‘리치먼드 북쪽의 부자들’이라는 노래였다.

그는 노래한다. “난 온종일 영혼을 팔며 일을 했어. 형편없는 급여를 받으며 초과근무를 했지 북쪽의 부자들은 철저한 통제를 원할 뿐이야. 리치먼드 북쪽의 부자들 때문이야.”

정식 발매되지 않은, 스스로 올린 유튜브 노래로 빌보드 상위에 진입하는 현상을 보며 양극화로 내달리는 세계 속에서 이제껏 체념하거나 적응하며 살던 차별받아온 감정들이 두런두런 일어서는 느낌을 받는다면 너무 오버일까? 아무튼, 이제 이 땅에서도 관리받지 않아도 되는 마음들이 구조를 직시하며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다. 역사는 그렇게 처절하게 차별받아온 자들의 감정이 한 데 모여 구조를 바꾸는 식으로 발전할 것을 믿기에 ‘명징하게 직조된’ 이 책을 등불 삼아 저 거대하고 단단한 벽들을 ‘노래’하며 넘어가길 소망해본다. (끝)

제30회
비판사회학회 콜로키움

북토크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9.15 (금)
오후 4시~6시

책
이주희,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글항아리, 2023)

사회
신희주
(가톨릭대)

토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가람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장소
이화여대(세부 장소는 추후 안내)
ZOOM ID: 810 4784 1668
PW: 230915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차별이 어떻게 다중계층 사회의
차별받는 사람들 일하는 여성
무너뜨리는 구조
차별의 구조 분열과 갈등의
탄생소로 조지, 정재성, 정하영
나를 갈아넣는 시간 차별하지 않는
국가구조의 허상을 뒤집어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이주희 지음 김항아리
관행성과 차별금지법
공적의 대안들 최유정 조지
신설 제계를 통한 기원사회의
차별의 재구성 자본사회의
차별의 서사 한국 사회 평등의
능력주의는 에토스를
차별이 아니다? 위하여
제남 자유대 지음



회원 신규박사논문 소개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 비교 연구 빈곤 완화 목표 달성을 위한 요소들의 효과성·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 이건민 (서울대 사회복지학박사)
학위 취득일: 2023년 8월

본 연구는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 제도가 빈곤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NIT 제도에서 빈곤 완화라고 하는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소득의 범위(소득인정액 개념 도입), 보장의 대상(최소보장소득과 NIT 세율의 수준), 보장방법(가구 단위 지급과 가구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고려) 등을 달리할 경우 그러한 변화들이 실제 빈곤 개선에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패널조사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 시나리오 및 모형별 빈곤율, 빈곤의 심도, 빈곤의 심각도, 지니계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현행 조세 및 복지 제도(이하 현행 제도)와 여섯 가지 시나리오에서 균등화 가구 처분가능소득으로 측정된 빈곤지수를 비교 측정함으로써,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에 비한 현행 제도 및 다섯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및 효율성에 관한 여섯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였다. 여섯 시나리오는 하나의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40% 정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을 반영한 시나리오)와 다섯 가지의 NIT 정책 변화 시나리오(소득 정의 변화 시나리오, 최소보장소득 수준 변화 시나리오, 세율 조정 시나리오, 가구 단위 지급 시나리오, 종합 정책 변화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현행 제도 및 다섯 시나리오와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 간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와 급여의 직접효과만을 고려한 직접효과모형과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과세와 급여의 적용으로 인한 노동공급 반응도 감안한 행태반응모형 모두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현행 제도에 비해 빈곤 개선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접효과모형과 행태반응모형 모두에서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가 소득 정의 변화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의 효과성 및 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최소보장소득 수준 변화 시나리오가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의 효과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과 행태반응모형 모두에서 성립하였다. 반면 최소보장소득 수준 변화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율성이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에서는 성립하였으나, 행태반응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았다. 넷째, 세율 조정 시나리오가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의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과 행태반응모형 모두에서 성립하지 않았다. 반면세율

(다음 면 계속)

조정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율성이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성립하였다. 그리고 행태반응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았다. 다섯째, 가구 단위 지급 시나리오가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의 효과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행태반응모형에서는 성립하였다. 이와는 정반대로, 가구 단위 지급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율성이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에서는 성립하였으나, 행태반응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았다. 여섯째, 직접효과모형과 행태반응모형 모두에서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가 종합 정책 변화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의 효과성은 더 우수하나, 빈곤 개선의 효율성은 열위에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기여 및 함의, 한계와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 빈곤 개선 효과, 노동공급효과, 직접효과모형, 행태반응모형

(끝)

31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연대의 토크, 세번째:
이주노동 운동 관련 주제 (제목 미정)
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 20주년 기념

11월 17일(금) 16:00~18:00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

- 발표: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
- 사회: 서선영 (충북대 사회학과)
- 패널: 김철호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조하영 (서울대 사회학과)

※ 현장 참여 행사(ZOOM 중계 병행)로 진행합니다.

〈경제와사회〉 139호(9월 발간) 목차



■ 특집: 한국 사회 갈등의 현장들

한국판 플랫폼 기술사회의 형성과 질곡

이광석

다문화사회에서의 국경만들기와 갈등의 극단화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을 중심으로

육주원

포함의 정치를 넘어 공동의 삶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장애운동의 도전(2021~2023)
고병권

■ 기획: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윤석열 정부의 노동 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몇 가지 문제 제기

노종기

■ 일반논문

한국의 선거제도는 어떻게 준연동형이 되었나?

담론적 제도주의로 본 2010년대 말 선거제도 개혁

김주호

자산경제와 정책태도

성별·연령집단별·노동시장지위별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태도 연구

김도균 · 양종민

앱과 거리를 연결하는 배달노동자 디지털 경제 시대의 혼종적 작업장

박수민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 연대경제로
청주시 우진교통의 지속가능성과 지역화 전략을 중심으로

이해진

구조에서 정동으로 생성의 분자사회학

이항우

■ 서평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연대의식에 대한 성실한 고찰

유형근, '분절된 노동, 변질된 계급: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생애와 노동운동' (산지니, 2022)

조형제

중산층의 붕괴? 특권 중산층의 출현!

구해근, '특권중산층: 한국 중간계층의 분열과 불안' (창비, 2022)

김도균

불평등과 빈곤 이해를 통한 사회적 치유의 가능성

김윤태 역음, '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한울앰플러스, 2022),
이성균, '한국사회 불평등과 빈곤 현실' (박영스토리, 2022)

황선재

■ 나의 비판사회학

비판사회학의 형성을 지켜본 한 연구자의 기록

공제욱

〈경제와 사회〉 링크

『경제와사회』 139호(2023년 가을호)는 학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저널레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지구, 끓어오르는 사회

■ 주은우 (편집위원장/중앙대)

정말 지독히도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고 희망한다). 하지만 앞으로 매년 더 무더워지는 여름을 맞을 것이며 인간은 거기에 적응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참 난감하고 우울할 뿐이다. 옛날에는 섭씨 30도만 되어도 입이 벌어지곤 했는데, 이제는 그걸 훌쩍 넘어서는 온도가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무더위’란 말은 커녕 ‘폭염’이란 단어조차 더 이상 뇌신경에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한다.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란 말도 한물간 어휘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 ‘지구가 끓어오르는(global boiling)’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

기후위기는 이번 여름에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재난을 일으켰고, 한국에서도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를 잃고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오송에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해 14명이 사망하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10여 명의 사람들도 정신적외상에 시달리고 있는 사건은 작년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게 하며 행정상의 난맥을 드러내 안타까움과 착잡함을 더하게 했다. 그로부터 보름여 뒤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 뭔가 심각한 결함이 생겼음을 만천하에 알렸으며, 정부와 정치인들이 야기한 국제적 망신에 애꿎은 국민들만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는 가운데 그나마 대회를 중단할 핑계를 제공해 준 태풍 ‘카눈(Khanun)’에 감사해야 할 형편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재난과 사고만이 아니다. 날씨가 더워 분노 조절에 실패해서인지 정신이 몽롱해지고 망상에 집어삼켜진 것인지, 이번 여름에는 백주 대낮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소위 ‘묻지마 살인’이 연달아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처럼 총기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더 참혹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하지만 서울 신림동의 살인자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남성들만 공격했고, 피해망상증을 호소한 분당 서현역의 살인자가 활발히 온라인 활동을 해온 것을 보면 날씨 탓을 할 일이 분명 아니다. 신림동의 한 등산로 부근에서 방학임에도 출근하던 여교사를 살해한 범인은 처음부터 성폭행을 작정하고 두 시간여 동안 인근을 배회하며 자신이 범행할 동선을 살폈다고 한다. 이런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들이 유난히 빈발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삶의 조건 일반과 무관할 리가 없다. 사이코패스도 소시오패스도, 또는 조현병자나 편집망상증자도 당연히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개인 심리는 근본적으로 사회 심리다(이른바 ‘사회적성격’ 같은 것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면 계속)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 속에 충격적인 범행들이 연속적으로 보도되던 이번 여름 한국 사회는 한 편의 지옥도가 펼쳐지는 것 같았다. 체포된 범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무덤덤한 표정으로 마치 검찰청이나 법원에 출두하는 재벌 총수나 정치인들이 그러는 것과도 같은 방식으로 판에 박힌 대사들을 영혼 없이 읊어대는 것을 보면, 전쟁이나 재앙과 같은 극한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뻔뻔해질 수 있는지 치가 떨리고 기가 막히게 된다. 하지만 곧 깨닫는다. 아니, 이미 익히 알고 있던 것을 새삼 곱씹게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도 모자라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는 악귀 같은 존재가 되어 끊임없이 적을 찾고 만들어 증오하며 상대를 절멸시키려 드는 삶을 살도록 내몰린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함께 힘을 합쳐 지옥도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예전에 ‘헬조선’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구조화되어 젊은이들이 꿈을 찾고 미래의 전망을 갖기 어려워진 암담한 현실을 의미하는 정도인 것 같더니, 촛불집회와 탄핵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사르트르의 말 “타인은 지옥이다” 식의 지옥이 된 느낌이다(그런 제목의 웹툰도 나오고 드라마도 방영되었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의 갈등은 전례 없이 격렬해지고 흡사 상대방의 제거나 파괴를 목표로 하는 듯 극단적으로 전개되며, 계급·젠더·세대는 물론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사회학적 분류 범주의 축을 따라 화해 불가능해 보이는 적대의 골이 깊게 파였다. 나르시시즘과 이기주의와 결합된 맹목적인 권리 의식의 고양 속에 남을 위한 배려나 공동체 의식 같은 것은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다. 관공서와 학교의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교원들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느라 정신이 없고, 모두가 서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꼬투리를 잡고 온라인과 SNS에서 집단 공격의 사냥감을 찾아 헤매며 고소와 소송을 남발한다. 급기야 이번 여름 한국 사회는 학생들을 훈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고통받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이 속출하는 황망한 사태를 맞고 깊은 슬픔에 잠겨들어야 했다.

이른바 ‘소셜’ 미디어가 광범위한 영역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가운데 사용자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격화시키며 정치적·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을 두고 ‘지구온난화’에 빗대어 ‘소셜온난화(social warming)’란 말이 나온 바 있다(Charles Arthur). 급속한 기후변화로 지구가 온난화를 넘어 끓어오르는 것처럼, 삶의 모든 차원에서 구조적 모순이 심화하는 가운데 빠른 정보화와 디지털화를 이룩해 온 대한민국은 사회적 온난화를 넘어 이제 ‘사회가 끓어오르는(social boiling)’ 단계에 들어와 있는 형국이다. 사람들의 연결망을 무한 확장하고 실시간 직접 소통을 실현하는 소셜 미디어와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창작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경제·정치·사회 등 삶의 제반 영역에서 구조적 모순이 깊어지고 절대 다수가 합의하고 공유하는 규범이 약해지고 무시되는 상황에서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홉스적 자연상태를 촉진하기 십상인 것 같다.

(다음 면 계속)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고 극단화될수록 집단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과제를 정치가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정치에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촛불집회에 힘입은 정권 교체 이후 다시 정권이 바뀔 지 금까지 한국 정치권은 흡사 해방 정국이나 한국전쟁 당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양분되었고, 두 거대 정당은 여당과 야당의 자리를 맞바꿔가며 오로지 열성 지지층에만 기대고 그들을 동원하며 또 그들에게 종속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합리적 비판과 격조 있는 협상의 대화는 사라지고 정치판에는 단순히 거친 언사를 넘어 시정잡배들의 것보다도 못한 막말만 난무한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날 생각조차 없고, 유튜브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하는 상황이니 앞으로도 희망은 품기 어려울 것 같다.

여름이 시작되던 지난 6월 19일과 20일 국회에서는 야당 대표 연설과 여당 대표 연설이 있었다. 양일 모두 여야는 판박이 행태를 보여줬다. 야당 대표는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여당 대표는 ‘전 정부의 책임’을 들먹였다. 그러는 동안 의석에 앉은 의원들은 자기 당 대표의 연설에 박수 치고 상대 당 대표의 연설은 소리 높여 방해하기 바빴다.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예의나 품격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상대 당 대표의 연설에 어깃장 놓던 의원들은 급기야 의석에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불쌍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그때 2층 방청석에는 민의의 전당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견학을 온 초등학교생들이 앉아서 이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다……. 가정 폭력의 심각성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대물림한다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니 정말 걱정이다. 사회의 화합과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당분간 어린 세대가 민주주의의 대표 기관을 찾는 것을 말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끝)

〈경제와사회〉가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경제와사회〉는 회원 여러분의 특집주제 제안 및 특집필자 추천, 서평대상도서 추천(국내필자도서에 한정), 그리고 ‘논평과 토론’ 코너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회원들께서는 편집위원회(crisocio@gmail.com)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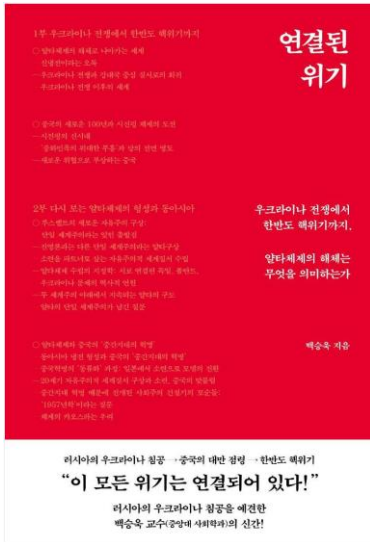
학회근조기 대여

운영위원회에서 학회 근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조기가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학회사무실(02-3148-6220)로 연락주시면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학회가 부담합니다.

백색수술



회원신간소개



연결된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알타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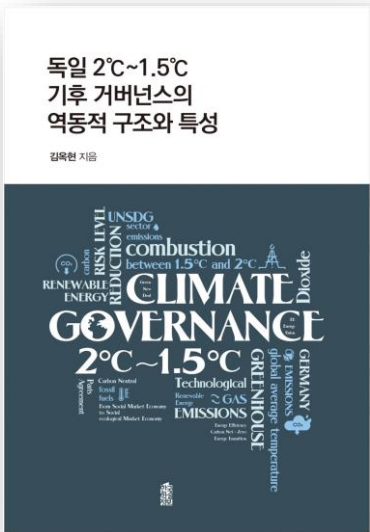
생각의 힘, 2023년 9월, 416쪽

백승욱 (중앙대 사회학과)

여기, 모든 위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책이 있다. 역사의 재해석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바로 보고, 국제정세 동요기에 한국의 현주소를 살피는 작업을 엄중하고도 찬찬하게 완수해낸 《연결된 위기》다. 멀게만 느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와 마냥 무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 뿐 아니라 중국의 대만 점령, 나아가 한반도 핵위기와 연결될 수 있다면? 심지어 한국 사회가 위기의 핵심 장소로 바뀔 수 있다면? 자칫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전, 1차 세계대전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저자는 여러 물음을 던지며 지금 우리가 밟고 선 세계를 매섭게 파헤친다.

《연결된 위기》는 우리가 처한 제약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려는 두터운 노력의 산물이다. 그와 동시에 더 많은 정보와 깊이 있는 이해로 무장한다면 상이한 역사 경로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관한 사고 실험이기도 하다. 책에 가득한 논의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세계질서 논의에 상상력을 제공한다.

목차링크



독일의 2°C ~ 1.5°C 기후 거버넌스의 역동적 구조와 특성

한국학술정보, 2023년 2월, 449쪽

* 2023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김옥현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이자,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층적이면서 매우 복합적인 갈등 방정식으로 얽혀 있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경제성장이나 민주주의 제도를 앞선 국가들의 경험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후변화의 문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사례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독일이나 EU의 2°C~1.5°C 기후 거버넌스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기후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는 일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유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독일의 2°C ~ 1.5°C 기후 거버넌스의 역동적 구조와 특성을 주제로 한다. 독일 사회의 다층위의 행위자들이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제도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사회적 중·장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복합적인 갈등을 의사소통을 통하여 해결하면서, 2°C ~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역동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은 자연과학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국제)정치적 영역을 아우르는 융합적인 관점과 통합적인 민주적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다. 1.5°C ~ 2°C 거버넌스는 다양한 자원과 요소를 상호 정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질 때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Agile Against L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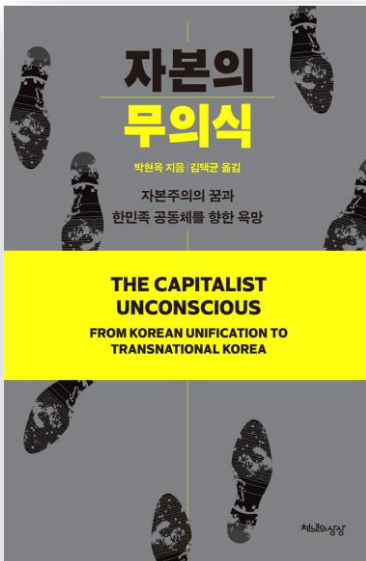
An Inquiry Into the Production System of Hyundai Motor

Palgrave Macmillan, 2023년 7월, 267쪽

조형제(울산대 사회·복지학전공),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This book attempts to pry open the ‘black box’ of compressed growth for Hyundai Motor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which was fallen on the verge of the ‘middle-ranked carmaker’s trap’ in the 1990s, and critically examines the dual and contradictory nature of this leapfrogging catch-up instead of simply focusing on the company’s success story. This book presents the novel theoretical and empirical characteristics of Hyundai Motor’s ‘agile’ production system based on ‘authoritarian experimentalism’ characterized by the ability of engineers to solve problems in an improvisational manner, skill-saving work organization and segmented labor, and extended quasi-vertical suppliers’ relationships under the chaebol corporate governance.

[목차링크](#)



자본의 무의식 자본주의의 꿈과 한민족 공동체를 향한 욕망

천년의 상상, 2023년 3월, 632쪽

박현옥 (캐나다 요크대 사회학과), 김택균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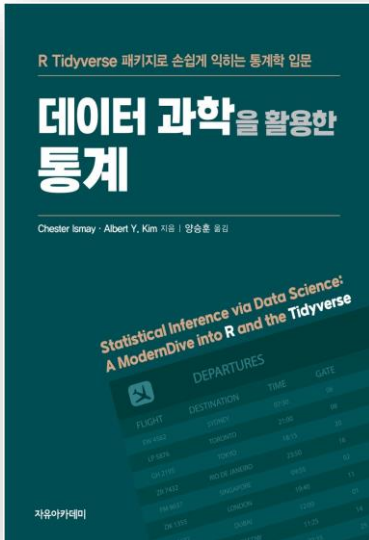
“남북한은 이미 자본에 의해 통일되었다.” 『자본의 무의식』 전체 내용을 압축한 이 책의 첫 문장이다. 저자 캐나다 요크대학교 사회학과 박현옥 교수는 남한, 북한, 중국 북동부 세 지역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살피기 위해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인터뷰했다.

그리고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을 분석한 이론들을 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엮어, 탈냉전 시기 세계자본주의가 영토 국가를 넘어 ‘사회적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대담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펼친 『자본의 무의식-자본주의의 꿈과 한민족 공동체를 향한 욕망』을 출간했다.

The Capitalist Unconscious: From Korean Unification to Transnational Kore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통계

R Tidyverse 패키지로 손쉽게 익히는 통계학 입문
자유아카데미, 언론실천재단, 2021년 3월, 326쪽

Chester Ismay, Albert Y. Kim, 양승훈(경남대 사회학과) 옮김

책은 세 가지 강점을 가진다. 첫째는 통계교육자로서 저자들의 확고한 철학이다.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수식 위주의 계산을 강조하는 것은 기초통계학 수준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 책은 가능하면 시각화를 통해, 아니면 산술계산 수준의 연산을 통해 주요 내용을 이해하게 한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작살’과 ‘그물’의 비유를 통해 점추정치와 신뢰구간을 쉽게 설명하는 부분은 이 책의 백미다.

둘째는 R tidyverse 패키지를 활용한 프로그래밍의 적극 수용이다. 2016년 9월 해들리 위컴에 의해 출시된 tidyverse 패키지는 R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ggplot2, dplyr 등을 포괄해서 담았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패키지를 일일이 설치하여 탑재할 필요가 없어지고, 역시나 tidyverse에 담긴 magrittr 패키지를 통한 pipe operator(%>%)를 활용하여 해석하기 쉬운 방식의 코드 전개를 통해 초심자들의 접근도를 현격히 높였다.

셋째로 한 학기 분량에 적합한 내용 편성이다. 이 책은 데이터분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문법 혹은 코드 작성법과 표집, 기초통계학의 주요 내용을 모두 담았다.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특별한 문제 없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다.

Statistical Inference via Data Science, Chester Ismay, Albert Y. Kim.
(Chapman and Hall/CRC, 2019)

[목차링크](#)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6.22~9.30)

- 7월 3일 하계 학술대회 준비위원 모임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박찬중 이사, 김성윤, 전윤정, 이태정 운영위원, 운영간사)
- 7월 6일 제 3차 운영위원 전체회의
- 7월 6일 제 28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개최 (연대의 토크 1회, “복합적 위기와 기후정의 운동”)
- 7월 17일~8월 11일 비판사회학교 운영
- 7월 26일 하계 학술대회 실무 회의 (운영위원장, 박찬중 이사, 운영간사)
- 8월 17~18일 하계 학술대회 개최 (“비판사회학의 새로운 실험과 연대”)
- 8월 17일 제 29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개최
(연대의 토크 2회, “반성매매 활동, 젠더섹슈얼리티 권력관계와 정치경제 권력관계에 균열내기”)
- 8월 17일 제 4차 운영위원 전체회의
- 9월 15일 제 30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개최 (북토크, 이주희,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 9월 22일 운영소위원회 5차 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운영간사)

회원동정

- 김정원 회원: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임용 (9월 1일자)
- 이건민 회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취득 (2023.8.)

신입회원

- 정회원 홍지은 (충북대 사회학과) 지규옥 (전주대학교)
 서선영 (충북대 사회학과) 전경모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ociology)
 하태규 (마르크스정치경제학비판 연구소 프닉스 2.0)
- 준회원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현황

(9월 7일 현재)

- 총회원 264명 (정회원 232명 / 준회원 14명 / 특별회원 15명 / 기관회원 3)

2023년 임원진

- 운영위원회

회장 서동진(계원예술대)	부회장 최현(제주대)	부회장 최인이(충남대)
운영위원장 김명수(전남대)	연구위원장 김주환(동아대)	운영위원 강민형(전북대)
운영위원 김성운(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김재형(방송대)	운영위원 김주호(경상국립대)
운영위원 박상희(서울시립대)	운영위원 박지훈(중앙대)	운영위원 박치현(대구대)
운영위원 서선영(충북대)	운영위원 신희주(가톨릭대)	운영위원 육주원(경북대)
운영위원 이도훈(서울대)	운영위원 이정은(창원대)	운영위원 이태정(성공회대)
운영위원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운영위원 전원근(제주대)	운영위원 전의령(전북대)
운영위원 정수남(전남대)	운영위원 조은주(전북대)	운영위원 조혁진(노동연구원)
운영위원 최종숙(민중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간사 장병호(중앙대)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주은우(중앙대)	편집부위원장 지주형(경남대)	편집위원 구본우(창원시정연구원)
편집위원 권오용(충남대)	편집위원 김민정(성공회대)	편집위원 김여진(강원대)
편집위원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집위원 김철효(경상국립대)	편집위원 박정미(충북대)
편집위원 유형근(부산대)	편집위원 윤상우(동아대)	편집위원 윤상철(한신대)
편집위원 장귀연(노동권연구소)	편집위원 정재원(국민대)	편집위원 정태석(전북대)
편집위원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편집위원 채오병(국민대)	편집위원 최현(제주대)
편집위원 하대청(광주과학기술원)	편집위원 홍덕화(충북대)	
재외편집위원 구해근(Univ. of Hawaii at Manoa)		재외편집위원 권학준(리쓰메이칸대)
재외편집위원 박현욱(York University)		편집간사 강석남(중앙대)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

□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1) 연 24만원 (월2만원) | (2) 연12만원 (월1만원) |
|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

□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판사회학회)